

2019년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9. 12. 19(목) 11:30-12:30
- 장 소 : 복지관 인근 식당 청담
- 참석자 : 최복수, 권양숙, 김덕숙, 김호경, 임효연, 전용한, 김경집 (7명)
- 위임자 : 서문석, 정정희 (2명)
- 사회자 : 최복수 위원장
- 배 석 : 이선옥 부장, 배은정 · 정유정 · 최진열 과장, 류세미 · 한정임 대리(6명)

■ 회의내용

1. 성원보고

김경집 부위원장이 7명의 운영위원 참석에 대해 성원보고하다. 서문석 위원은 구정일정으로, 정정희 위원은 개인일정으로 참석이 불가함을 전달하였다고 설명하다.

2. 개회

제4차 운영위원회 성원 보고됨을 확인하고 최복수 위원장이 2019년 제4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다.

3. 전 회의록 서면 검토

위원장이 전 회의록의 가납여부를 묻자, 임효연 위원과 전용한 위원의 동의로 가납되다.

4. 4분기 사업보고

4분기 사업보고는 서면보고로 진행하며 각 부서장들이 사례관리, 서비스제공2, 서비스제공1 (사업진행으로 인하여 이선옥부장이 보고), 지역조직 순서로 중점사업 성과를 보고하다.

김경집 위원 : 임효연 위원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마련에 대한 제안(2019년 2차 운영 위 자료참조)을 반영하여 중점사업 중심의 성과보고를 준비하였음을 설명하다.

임효연 위원 : 의견을 당해 연도에 적용하여 반영함에 대한 감사를 전하다. 쉽지 않은 일이며 준비하느라 노력함을 치하하다.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다. 모든 사업들이 좋은 의미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당사자와 지역에 의미가 있는지를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음을 이야기하다. 특히, 슬기로운 가족생활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에서 정량지표와 함께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기록이 병행되어 있음을 높이 사다. 행복한 밥상 희망찬 우리 사업에서 남성참여자도 있는지와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없었는지를 질의하다.

정유정 과장 : 남성 사례관리 당사자분들이 함께하여 사례관리 안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왔다고 답변하다.

임효연 위원 : 가드너의 정원에서 전문 강사를 섭외하였는지를 문의하다.

배은정 과장 : 프로그램 안에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진행하였으며 자아탐색 하루보기 프로그램은 담당 사회복지사가 진행하였다고 답변하다.

임효연 위원 : 어려운 프로그램이고 힘든 과정을 실현하였다고 이야기하다. 통합사례회의 체계에 대한 방법을 문의하다.

정유정 과장 : 통합사례회의를 시스템화 하여 구 단위의 고난위 사례회의, 구의광장권역 민·관·학 통합사례회의, 동 단위 사례회의를 진행, 참여하였으며 사례에 맞춰 개별 사례회의를 관련 단체들과 모여 진행하였다고 답변하다. 만들어 가는데 힘들었으나 변화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다.

임효연 위원 : 이런 과정을 이뤄내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과정 과정을 애쓰면서 밟아가고 있음을 치하하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다양한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복 입력 등의 행정입력 과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협업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하면서 진행해야 하고 행정을 줄일 수 있는 영역을 계속해서 마련해 가야함을 이야기하다.

최복수 위원장 : 행정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관은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지역 안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고 있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데 편리하며 이러한 노력으로 민과 관의 사례 발굴, 행정 협업 등으로 속도가 빨라짐을 이야기하다. 예로 광장동에서 진행되었던 사례를 이야기하다.

5. 2019년 2차 추경 심의

이선옥 부장이 2019년 2차 추경에 대하여 보고하다.

권양숙 위원의 동의와 김덕숙 위원의 재청으로 가납되다.

6. 2020년 예산 심의

이선옥 부장이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다.

전용한 의원 : 전년도 보조금과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문의하다.

이선옥 부장 : 내년도 인상분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서울시 가내시 내용을 바탕으로는 총 인상률3.89%(기본급2.8%) 상향조정되었음을 안내하다.

전용한 의원 : 자영업자들도 체감도가 높아졌으며 사회 구조적 변화들로 사업비가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시민운동과 정책 등으로 국가 및 광진구 예산 중 복지예산이 총액대비 해서 상향되었으나 복지관 예산은 정체됨을 이야기하다. 특히 사업비 부분은 감소되거나 정체되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많을 것이며 이에 대한 고충이 심할 것임을 이야기하다.

임효연 위원 : 종결사업이 있는 만큼 신규 사업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다.

이선옥 부장 : 환경 변화 분석을 기반으로 신규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외부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내년 신청이기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외부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안내하다.

임효연 위원 : 50+ 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다.

이선옥 부장 : 50+세대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어르신과 50+세대에 대한 통합 사업을 기획하고 있음을 안내하다. 내년 기획사업을 진행 될 예정이며 응원을 요청하다.

최복수 위원장 : 우리 복지관은 잘 이끌어 나가고 있지만 국가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정책으로 내 놓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좋은 체계인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있음에 아쉬움을 표현하다.

위원장이 2020년 예산에 대하여 가납여부를 묻자 김호경 위원의 동의와 전용한 위원의 재청으로 가납되다.

7. 기타 안건 및 공지사향

최복수 위원장이 2019년 마지막 운영위원회로 한 해 동안 운영위원 개개인의 소회를 나누는 시간을 제안하다.

임효연 위원 : 한 해 고생 많이 하였으며 내년에도 건강함을 바라다.

김호경 위원 : 한 해 수고하였으며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을 이야기하다.

김덕숙 위원 : 2019년 광장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즐거웠음을 이야기하고 2020년에도 힘껏 도울 것을 이야기하다.

권양숙 위원 : 여러 가지로 함께하지 못하였던 점이 아쉬움이 많이 남았으며 마음은 함께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다.

전용한 위원 : 관장님 이하 직원들의 관리능력과 협업으로 복지관이 잘 운영되고 있기에 든든하며 사회적 분위기가 복지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개별적 지원이 많아 지역사회복지관에 확장되어 지원하고 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음을 이야기 하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어울려 함께하는 지역사회복지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함을 전하며 직원들을 격려하다.

김경집 위원 :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운영위원분들께서 위원회 활동 자체만으로도 자긍심을 갖고 직원들도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하다.

8. 폐회

최복수 위원장이 12:30에 2019년도 제4차 운영위원회의 폐회를 선포하다.